# 마음의 이해와 철학적 사고 2차 학습 일지

20213032 권영훈입니다. 과제 제출하겠습니다.



마음의 이해와 철학적 사고

7주차 강의에 관한 2차 학습일지.

세월호 사건

금일은 2024년 4월 16일입니다. 교수님께서도 강의 중 언급하셨지만 세월호 10주년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 친구들의 메신저에 노랑 리본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길던 10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벌써 제 나이도 23살 군 전역을 하고 복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무엇을 잊고 지냈을까요? 10년전 초등학교 6학년 저는 곧 있을 2번째 수학여행에 기대를 갖고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일은 없는 일이 되었고 그저 나라 전체가 애도의 기간(노랑 리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물론 더 많은 시끄러운 가십들이 있었지만 어렸던 저는 딱히 관심을 갖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어린 고등학생(형, 누나)들의 죽음에 전국민이 함께 애도했다… 라는 기억만 있을 뿐… 그 후 저는 학업과 군 복무를 하며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2022년 10월 29일 또 다른 참사 날 아침, 당시 일병 권영훈(나)의 신병휴가 후 격리 복귀 다음날 기상 알림 소리와 함께 생활관 밖에부터 들리는 생활관 왕고(최고 선임)의 다급한 부름 “권영훈 \*\*(비속어)넘아 지금 잘 때냐? 지금 사람들 죽었다고.” 이 말을 듣자 저는 선임의 장난 인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후 아침 뉴스와 함께 9시 집합에서의 포대장(중대장, 저의 부대는 포병 부대라서 포대장이라 칭해짐.)님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7일의 애도기간에 대해 말씀해주시면서 그 주에 7일동안 예정되었던 대침투 훈련이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물론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의 분명한 차별점은 존재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야박하게 굴긴 싫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왔던 크나큰 사건들은 사전에 대비가 되어있었다면, 소 잃지 않고 외양간부터 고쳤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큰 아픔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글을 다 쓰고 다시 한번 읽어 봤는데 뭔가 글이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바베트의 만찬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덴마크 영화는 덴마크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두 자매는 엄격한 목사의 딸로 어렸을 때부터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다. 어느 날, 바베트라는 여인이 프랑스에서 도망쳐왔다는 사실에 그녀를 하녀로 받아주고,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베트는 큰 금액의 복권에 당첨된다. 큰 돈을 얻게 된 그녀는 그 돈을 자신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프랑스 최고의 만찬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바베트라는 여성의 행동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큰돈을 얻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나는 먼저 나의 욕구를 해결할 것이다. 집, 차, 부동산, 해외여행 등등 하고 싶은 것이 매우 많다. 하지만 이 돈을 나의 주변 친구, 어른,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질문에는 쉽게 긍정의 답변을 못 할 것 같다.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때 학기가 끝난 방학식때 방학관련 안내문을 주시면서 월드비전 저금통을 함께 주면서 개학식에 돈 넣어 챙겨오라고 하셨다. 이에 어린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썼고 개학식이 얼마 안 남았을 시기에 그냥 부모님이 100원, 10원 동전들을 모아 넣어 주신 저금통을 들고 개학식에 갔던 기억이 있다. 어렸을 적 나는 기부라는 베풂을 굳이 생각해 본적이 없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바베트의 만찬은 기부 저금통과는 다른 느낌의 베풂이지만 바베트의 베풂은 엄청난 용기와 신념을 가진 행동이고 내가 들고 갔던 기부 저금통은 바베트의 베풂의 출발점이 되는 씨앗이 아니였을까한다.